

창립: 1991. 12. 29.

제31-33 2022. 08. 14.

가르치는 교회 ▪ 전파하는 교회 ▪ 봉사하는 교회

표어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1. 영적부흥을 통해 예수의 제자가 되어,
2.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3. 21세기를 감당하는 일꾼을 키워내고,
4. 지역사회를 인도하고,
5. 세계선교에 헌신하는데 있습니다.

월 행사 안내

7월 26일(화), 27일(수)

새싹학교 Term 3 개강

8월 4일(목)

파더와이즈, 마더와이즈 회복과정 개강

8월 6일(토)

제3기 한우리 기도학교 개강

8월 20일(토)

하반기 양육과정 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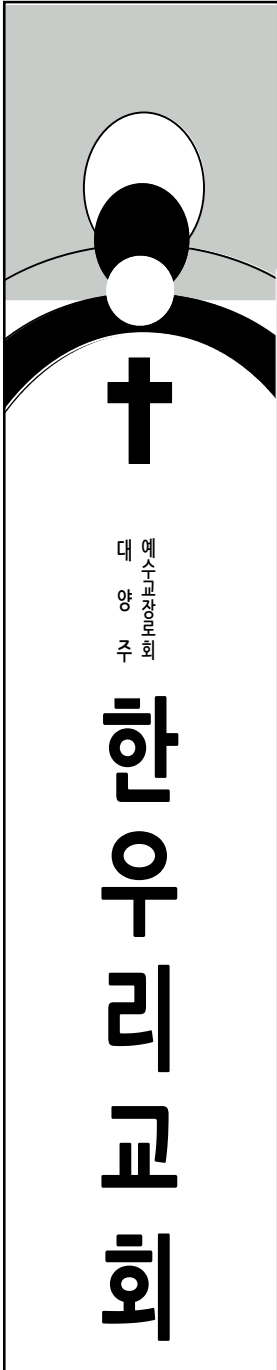
8월 28일(주일)

성찬식

담임목사 **남 우 택** (Stephen W. T. NAM)

59 View Rd. Glenfield, Auckland, 442-1457

Hanouri Korean Presbyterian Church



주일에배

예 배 순 서

1부 8:00 2부 10:00 3부 12:00 4부 2:00 사회: 1부/최영두 2부/김민재 3부/이요한 4부/형지원

- 예배부름 사 회 자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함 께
- 경배와찬양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다 함 께
선포하라
- 봉헌 및 1부/ 문채훈 권사 2부/ 이강용 장로 3부/ 김승권 장로 다 함 께
대표기도
- 성 경 행 11:19-26 사 회 자
- 찬 양 2부: 날 위해 죽으신 예수 시온찬양대
3부: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할렐루아찬양대
- 말 씬 공동체세움시리즈 5 남우택 목사
교회 공동체의 목적
- 찬 양 주님 말씀하시면 다 함 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 축 도 설 교 자

<4부 예배 순서>

- 경배와찬양 다 함 께
- 봉헌 및 지 정 훈
대표기도
- 말 씬 룻기 4:13-22 최영두 목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 축 도 설 교 자

다음주 기도: 1부/ 조기동 장로 2부/ 생백촌 권사 3부/ 김태원 장로 4부/ 채중인 청년

수요일에배

저녁 7시30분

말씀: 빌 4:2-3
 제목: 같은 마음을 품으라
 기도: 김휘홍 집사 (다음 주 기도: 허진희 집사)
 설교: 최영두 목사

교회소식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교회알림

1. 한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접견실에서 만남이 있습니다.
2. 2022년도 하반기 양육과정을
시작합니다. 신청서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3. 오는 30일(화) '제28기 알파코스'
초대 만찬이 있습니다.
4. 1, 2, 3부 예배시 음향봉사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 김민재 목사 020 4011 7176
5. 한우리 도서실에서는 정기적으로 신간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양한 양서들이
입고되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양육과정

2022하반기 양육과정				
강좌명	강사	강의내용	기간	요일
한우리반	안현수 목사	예수그리스도의 복음과 한우리교회의 비전을 배우고 나누는 과정	매월 첫주개강 (4주)	주일 오전11:30
성장반 (삶)	안현수 목사	베드로전/후서를 통해 신앙인의 참된 삶을 조명하는 과정	8월20일 (15주)	토요일 오전10시
성장반 (교리)	김민재 목사	삶의 기초를 세우는 11가지 핵심 진리를 공부하는 과정	8월20일 (15주)	토요일 오전10시
사역훈련반	남우택 목사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의 소양과 방법을 갖춰가는 과정	8월21일 (12주)	주일 오후2:30

전도부

이번주 주일 2시 30분에 느헤미야홀에서 전도부 기도회 및 찬양 연습이 있습니다. 관심있는 성도는 동참해 주세요.

교우동정

- 소천 고 이동수 성도(김진숙 성도, 김수정 자매)께서 지난 6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가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간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업 오현중, 원아름 O Chef, 09 410 4729 14 Raines Avenue, Forrest Hill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계령 중에, 환우를 위한 진료와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기 알파코스 게스트 모집

■ 기간: 8월 30일(화)~10월 25일(화) 6:30~9:10

지금보다 나은

그 이상의 삶이 있을까?

복음이 필요한 전도 대상자와 신앙을 새롭게 세워가길 원하시는 성도분들을 환영합니다

■ 문의: 최상현집사 021 885 318





왜 사는가? 나의 행복을 위해 직장, 학업, 신앙생활 열심히 살면 행복할까?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적인 가치를 붙잡고 살 때 바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당신은 교회에 나와 신앙 생활하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진솔하게 나누어
보세요.

2. 교회 공동체 존재의 목적이 어디에 두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인지 함께
정리해보세요.

3.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집중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정리해보세요.

4. 이번 메시지를 통해 특별히 깨달은 교훈을 서로 나누고 전도 대상자를 작성한 후
함께 기도하세요.

캐나다

“지존자를 거처로 삼은 네게 재앙이 가까이 못하리라”

캐나다 최동단 50년만 최악의 산불...

비상사태 선포

캐나다 동부에서 반세기 만에 최악의 산불이 발생해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펀들랜드라브라도주(州) 주지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산불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비림의 변화로 연기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변적인 상황에 더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서는 약 2주 전 산불이 시작된 이후 불길의 잡히지 않고 있으며, 피해 면적은 현재까지 총 1만 1천500헥타르(115km²)로 추산된다. 여의도 면적의 39배 수준이다.

불이 난 지역에 거주민이 많지 않아 대피 명령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당국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언제든지 대피 명령을 내릴 준비에 들어갔다. 정부는 삼림 내에서는 물론 삼림 밖 반경 300m 이내에서도 캠프파이어 등 불을 피우는 행위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빌 블러워 캐나다 비상대처부 장관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군 인력들이 산불의 영향을 받은 지역 주민들의 대피와 이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 및 지자체 관계자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연합뉴스)

대한민국

“외모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느니라”

지나친 외모 중시 경향이 불러온 비극...

아동, 청소년 섭식장애 심각

활발한 SNS 이용과 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해 자신의 외모에 자칫하게 집착하는 아동,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섭식장애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섭식장애는 거식증과 폭식증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최근 국내에 거식증(산경성 식욕부진) 환자가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거식증 진료 인원은 2015년 1,590명에서 2019년 1,845명으로 지난 5년 사이 16% 증가했다. 환자가 가장 많은 성별·연령 집단은 10대 여성(14.4%, 1,208명)이었다. 10대 청소년은 건강보다 다른 사람에게 바치는 자신의 모습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문가들은 과거에도 젊은 여성의 섭식장애를 적잖이 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를 ‘오피스 룩’으로 믿으며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 이른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프로아나 콤플렉스’라고 한다. 프로아나는 찬성을 의미하는 ‘프로(pro)와 거식증을 의미하는 ‘아나(anorexia)를 합친 말이다. 이들은 마른 몸임에도 체중조절에 집착하며 체중, 체형에 과도한 관심을 쏟는다. 자존감 저하, 우울감이 동반되기도 한다. 오늘날 미디어가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주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출처: 동아일보)

기 도 문

사랑하는 하나님,

- 캐나다 대형 산불이 잡히지 않아 어려움 중에 있는 동부지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화재를 진압하는 팀을 인전히 보호해 주시고, 비를 내려 주셔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 대한민국 걸모습에 자칫하게 집착하고 또 이것을 라이프 스타일이라 여는 다음세대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외모 중독에서 벗어나 자기를 지으신 주의 이름다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 환유를 위해 모든 치료 과정마다 잘 이기고 견뎌 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을 아무런저 주사 온전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육신과 영혼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